

‘셀럽파이브’ 가요무대 서고 ‘계룡선녀전’ 첫 드라마 연기 이젠, 영화 출연도 해볼까요?

개그우먼 안영미

“엄청난 연기 부담…힘 빼니 더 잘됐죠”

“2018년은 생각지도 못하게 चु뿐이 됐고, 생각지도 못하게 배우가 된 한해였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결과도 좋아서 뜻하지 않게 행운아가 됐습니다.”

개그우먼 안영미(36)에게 2018년은 유달리 바빴다. 걸그룹 ‘셀럽파이브’로 가요무대에 섰고,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계룡선녀전’으로 첫 정극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안영미는 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을 ‘바빴지만 감사했던 한 해’로 정리했다.

그는 드라마 원작이 된 웹툰을 보고서야 출연을 결정했다. 첫 정극 연기라는 부담감에 연기 수업까지 받았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받고 나니 자꾸 계산하게 되고, 나 자신을 너무 움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들이 저한테서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도요.”

안영미가 연기한 ‘조봉대’는 원작 웹툰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다. 드라마에선 정반대로 안영미 특유의 개그 캐릭터가 스며들었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작대로 가다 보니 제 모습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드리브를 쳤고, 감독님도 그 모습이 훨씬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다만 원작 팬들이 실망해서는 안 되겠기에 조봉대라는 비주얼은 그대로 가져갔다고 한다. 안영미는 “탈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나중엔 색이 안 먹어서 가발을 썼다”고 한다.

“조반연 다른 연기자들과 붙는 장면이 없어서 혼자 뛰는 것 같아 눈치를 봤다”는 그는 “나만 욕먹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엄마랑 남친친구에게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

지나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걸그룹 ‘셀럽파이브’에서는 유닛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영미는 송은이와 함께 노래에 주력하는 유닛으로 시청자들과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다.

걸그룹, 드라마,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 반경을 넓힌 안영미는 영화 쪽에도 진출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쳤다.



“그동안 오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영화를 통해 차분하게 가라앉은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같은 캐릭터로 어두운 면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합뉴스

홍진영, ‘사랑은 다 이러니’ 발라드 변신

가수 홍진영(34·사진)이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로 새해를 시작한다.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 “홍진영의 발라드 신곡 ‘사랑은 다 이러니’를 오는 4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사랑은 다 이러니’는 이별 후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정통 발라드곡으로, 애절한 목소리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어우러졌다고 뮤직K는 전했다.

2007년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엄지척’, ‘잘가라’를 연달아 히트시켰다. 최근에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고정 멤버로 합류해 사랑받는다.

/연합뉴스



장기하와얼굴들 ‘마지막 콘서트’ 10년 활동 끝내… “다시 만날 것”

밴드 장기하와얼굴들이 나흘간 콘서트(사진)를 끝으로 10년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장기하와얼굴들은 지난달 28~31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장기하와 얼굴들 마지막 공연’(마무리: 별일 없이 산다)로 팬들에게 안녕을 고했다.

이들은 정규 2집 수록곡 ‘마냥 걷는 다’로 공연 포문을 열고 ‘나란히 나란히’, ‘거절할 거야’, ‘등산은 왜 할까’, ‘나와의 채팅’, ‘별거 아니라고’ 등 지난 해 11월 발매한 정규 5집 수록곡들을 선사했다.

또 ‘우리 지금 만나’, ‘짜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가자’, ‘풍문으로 들었소’, ‘내 사람’, ‘새해 복’, ‘빠지기는 빠지더라’ 등 옛 히트곡을 열창해 때장을 끌어냈다.

장기하는 “마지막 곡으로 ‘별거 아니라고’를 부르며 다 같이 시원하게 울고

마무리하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장얼스럽지 않은 것 같다. 재미있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하와얼굴들은 없다. 이번 공연이 졸업식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와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좋은 친구였기에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 때 별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양코르 요청이 쏟아지자 “그렇고 그런 사이”, ‘별일 없이 산다’로 2시간 30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8년 싱글 ‘짜구려 커피’로 데뷔한 장기하와얼굴들은 복고와 독창성을 더한 실험적인 음악으로 내공을 인정받았다.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 “가장 멋진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답게 밴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해체를 알린 뒤 새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연합뉴스

이서진 ‘국민 앵커’ 역할

OCN 드라마 ‘트랩’ 출연

OCN은 다음 달 9일 드라마 ‘트랩’을 선보인다고 2일 예고했다.

이서진이 주연을 맡은 ‘트랩’은 OCN이 영화 제작진과 협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네마틱 드라마’의 첫 타자로 화제를 모은다. 총 7부작인 이 작품은 알 수 없는 탓에 걸린 국민 앵커 강우현(이서진 분)의 충격적인 전말을 그린 하드보일드 추적 스릴러극이다.

영화 ‘백야행’의 박신우 감독이 연출을,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TEN(TEN)’을 집필한 남상욱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다음 달 9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커밍순(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50 삼청동 외할머니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보도특집다큐 신 골드러시, 나로에서 우주까지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25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 (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특선다큐 오방 최홍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신년특선 양코르 <육관면옥>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김마리아>			
[10]	00 신년기획 KBS 스페셜 어른들은 모르는 Z세대의 삶 55 UHD 숨터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웃 동네 TV>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영혼의 팔레트 고평테말라 4부 축제의 땅 안티구아 고평테말라>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댕동맹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알랄라 뿌우 09:00 두다다콩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아보카도 감자샐러드와 토마토양배추 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10 정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가 폴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알랄라 뿌우(재)	16:45 댕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17:30 뽀빠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푸른 바다의 전설, 아드리아해 4부 100년 전 귀족 여행> 21:30 한국기행 <오래된, 좋은 4부 우리 엄마 참 따사리>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48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다. 60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72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 84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3, 81	 午	42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54년생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66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8년생 기교가 수익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90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73
 丑	37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9년생 참으로 쉬운 일이다. 61년생 순응함이 유익하다. 73년생 무의식중에 넘어지거나 밟힐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일반적이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6, 64	 未	43년생 성사시키기에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다. 55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79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92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26, 46
 寅	38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50년생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둔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4년생 뜻밖의 괴로움이 발생될 소지가 농후하다. 86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53, 45	 申	44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56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68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80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92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60, 94
 卯	39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51년생 참으로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63년생 오히려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감안하라. 75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87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44, 75	 酉	45년생 호기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 막을 것이다. 57년생 확실한 어필이 절실할 필요한 때이다. 69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으니 실질에 주목하자. 81년생 합리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게 된다. 93년생 의문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3, 55
 辰	40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52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64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76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88년생 벽을 치면 대박이 올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8, 70	 戌	34년생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중흥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58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70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하자. 82년생 유혹에 이끌리다보면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6, 48
 巳	41년생 안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53년생 기저에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익이다. 65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77년생 불합리하다면 빨리 개선하자. 89년생 자질이 없으니 격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3, 31	 亥	35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47년생 바라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59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71년생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으니 조금씩 서두르지 말라. 83년생 소식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